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7. 1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베네수엘라, 노르웨이 중재로 與·野 대화 재개 예정
 - 7.7 현지 언론은 올해 1월부터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「니콜라스 마두로」 대통령과 「후안 과이도」 야권 지도자가 노르웨이의 중재로 인근 섬나라 바베이도스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
 - *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1월 이후 베네수엘라 난민·이민자를 100만 여명으로 추산
- 美, 운전면허 사진을 범죄수사 등을 위한 안면인식 조화에 활용
 - 7.7 워싱턴포스트는 美 연방수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교통국에 등록된 운전면허 사진을 개인의 동의 없이 범죄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화에 활용해 왔다고 보도

유럽

- 프랑스, '증오콘텐츠 24시간內 삭제' 법안 하원 통과
 - 7.9 프랑스 하원은 SNS상에 인종차별·혐오발언 등의 명백한 증오 콘텐츠가 발견 또는 신고 될 경우 인터넷 기업이 24시간內 삭제하도록 강제하고, 위반할 경우 최고 125만유로(약 16억원)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

아프리카

- 보코하람, '09년 이후 兇童 8천명 테러에 동원
 - 7.8 유엔마약범죄사무소(UNODC)는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이 최소 8천명 이상의 아동을 테러활동에 동원했다고 발표

중 동

○ 아프간 정부-탈레반, '민간인 피해 제로' 합의

- 7.9 알자지라 방송은 7~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프간 정부-탈레반 간 평화협상*에서 '민간인 살상 중지, 이슬람 틀 속에서 여성 및 모든 종파와 종족의 권리 보장'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, 공공시설의 안전보장과 함께 나이가 많거나 병에 걸린 포로를 석방할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

* 카타르와 독일이 주선하여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, 각계 대표 등 60여명 참석

○ 美, 레바논 무장세력 고위인사 3명 제재

- 7.9 AP통신은 美-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美 재무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테러활동을 도운 혐의로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고위인사 3명*에 대해 미국내 보유자산 동결 및 미국인과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

* 레바논 의회 의원 2명(「아민 셰리」, 「무함마드 하산 라드」)과 레바논 보안군 핵심연락책 1명(「와피크 사파」)

아 · 태평양

○ 스리랑카, 대선 앞두고 극우 불교단체 정치적 결집 시도

- 7.8 로이터통신은 부활절 테러를 겪은 스리랑카에서 극우 불교조직의 지도자 「갈라고다 아테스 그나나사라」가 11월에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'신할리족-불교도'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

* 스리랑카 종교분포: 불교(70%), 힌두교(12.6%), 이슬람교(9.7%), 기독교(7.6%) 順

인도 뭄바이 열차 폭탄테러

- '06. 7. 11. 인도 뭄바이에서 수부르반 레일웨이 노선을 달리던 7대의 열차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해 만든 폭탄이 연쇄폭발, 209명이 사망하고 700여명 부상
 - 18시 20분경 뭄바이 반드라 역에서 처음 폭발한 후 카르, 조계쉬와리, 마힘, 미라, 마통가, 보리빌리 등에서 연쇄폭발 발생
 - 테러범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퇴근시간대 열차의 1등칸 객실에 폭탄을 설치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
- 이슬람 테러단체 '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'의 동조세력인 '라쉬카르 에 카하르(Lashkar-e-Qahhar)'는 '구자라트와 카슈미르의 무슬림 탄압에 대한 보복'이라며 자신들이 소행이라고 주장
 - * 경찰은 '라쉬카르 에 카하르'와 '인도 학생 이슬람 운동(SIMI)'의 소행으로 결론
- '15.10월 마하라슈트라주 특별법원은 검거된 테러범 12명 가운데 직접 폭탄을 설치한 5명은 사형, 폭탄 제조·운반을 도운 7명에게는 종신형 선고

<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, Lashkar-e-Taiba) >

- (결성배경) 아랍어로 'Lashkar'는 군대, 'Taiba'는 '의로움'의 의미로 '의병대'를 뜻하며 아프간에서 소련군 철수('89년)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가 「압둘라 아잠」, 「하피즈 사이드」 등이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귀속과 남아시아의 이슬람화를 목적으로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5.5), 미국('01.12), 영국('01.3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펀잡·카이버팍툰콰주·카슈미르 지역, 인도령 도다·잠무 카슈미르 지역
- (주요테러) '08.11 인도 뭄바이 호텔, 기차역 등 동시다발 테러(사망 166명, 부상 300명)
'15.7 인도 펀잡주 구르다스푸르 경찰서 기습공격(사망 19명)